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83 | 2025년 11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위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DOP

- 국제기도의 날 IDOP
-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이유 (카메룬)
- 나이지리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담당자 아나후 인터뷰

Heart To Heart

- 현장스토리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박해와 선교현장

- 에티오피아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11월호 | 통권 283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유진영, 민찬양, 신예은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섭, 한로이, 송례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삿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
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
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
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IDOP

- 국제기도의 날 IDOP
-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이유 (카메룬)
- 나이지리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담당자 아나후 인터뷰

16 Heart To Heart

- 현장스토리
- 기도학교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 박해와 선교현장

- 에티오피아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국제기도의 날 IDOP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편46:1 -**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픈도어는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동구권으로의 첫
방문으로 시작 하여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중국, 구 소
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등 전세계 많은 곳으로
복음 중심적 사역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핀도어는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하
나님께서 브라더 앤드류에게 주신 "남겨진 자들을 굳
건하게 하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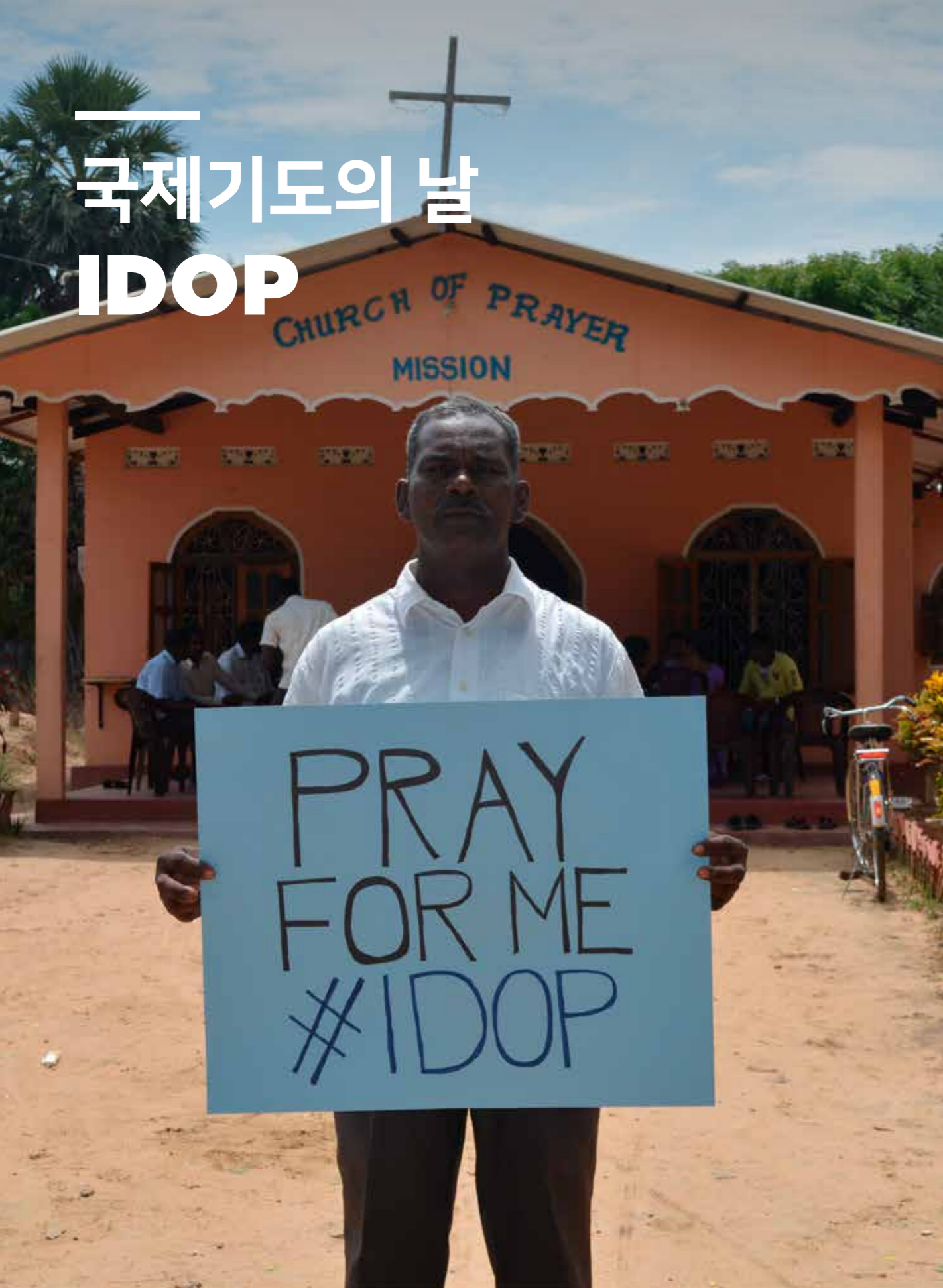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목
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를 부르신 첫 날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픈도어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다면, 저는 절대 그 첫 걸음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 걸음을 걷고 나면 어
떻게 될지 하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
님은 은혜가 총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
십니다.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응답되
지 않은 기도제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그
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
리가 기도의 힘이라는 잠재력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
루에도 수백 번 무릎을 꿇고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분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 브라더 앤드류,
오픈도어 설립자 (1928-2022)



국제기도의 날 IDOP



199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매년 11월 첫째 주를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로 정했습니다. 전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이 기도운동을 함께 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오픈도어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는 평생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한 섬김을 인정받아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총회에서 종교자유상을 수상한 첫 수상자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수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 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동원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중요한 변화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기도날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 요한계시록 3:2 -

IDOP 국제기도의 날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동참해주세요.**

- 방법 01.** 2025년 11월 2일, 주일 예배 시간에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날을 특별히 'IDOP 국제기도의 날'로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OP 국제기도의 날 주일 당일 지정헌금을 통해 박해 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방법 02.** 교회는 자유로운 날을 선택해서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 방법 03.** 11월 한 달 동안 개인 또는 그룹들은 11월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도의 날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아래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요청하기 -> 오픈도어 Sunday
국제기도의 날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나는 중동 테러리스트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른 인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여성 두 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인질들과 그 가족들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라고 그 여성이 말했다. 다른 여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를 상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힌 것 같아요. 테러리스트나 독재자, 마약 밀매자, 범죄자 같은 사람들 말이예요." 그러자 먼저 말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팔을 가볍게 토닥거리면서 위로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지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뭐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째서 그 능력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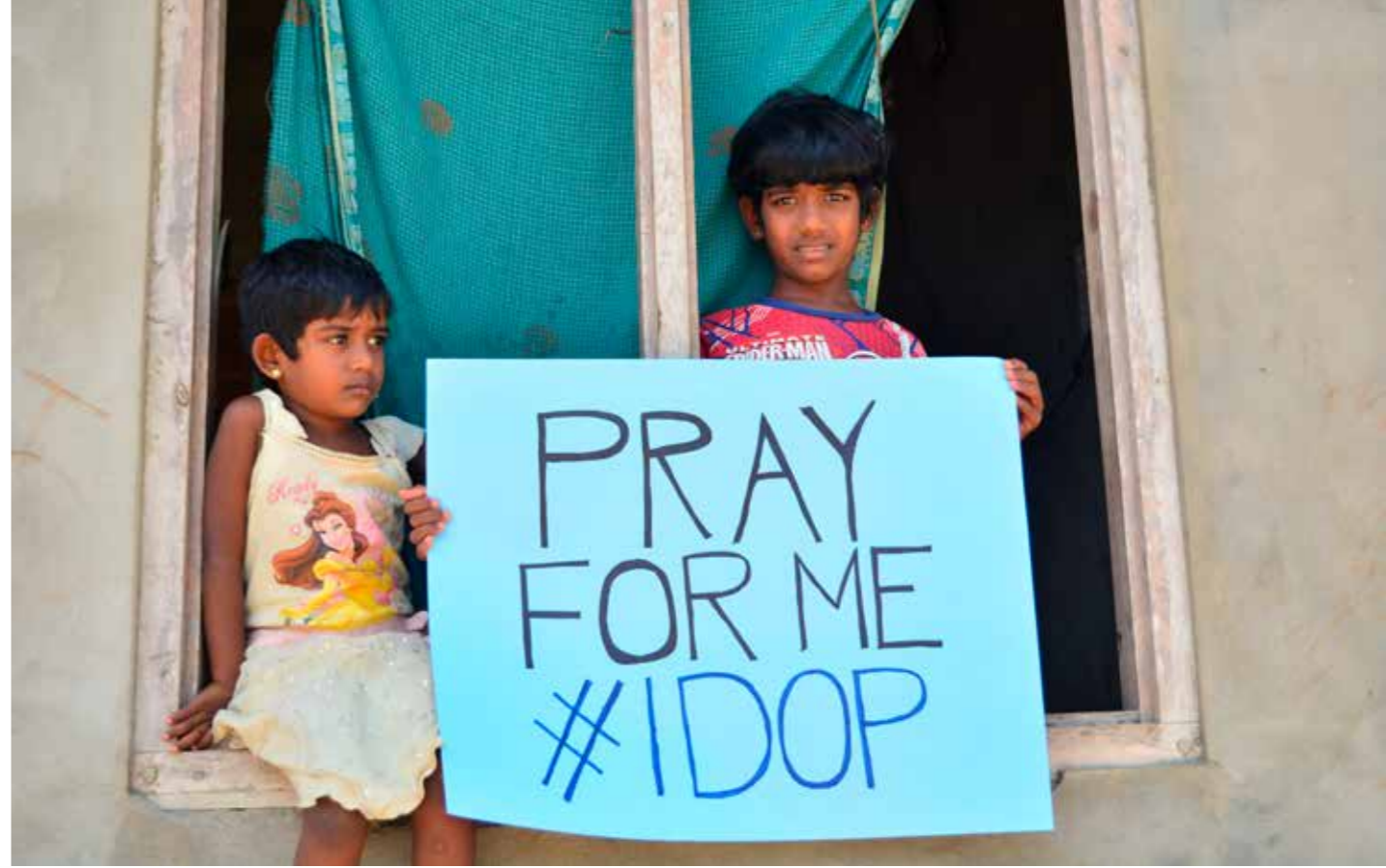


용하지 않는 겁니 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히 헌신된 그 여성들은 그릇된 교리에 빠져 있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교리에 감염되어 있다. 나는 이 교리를 '운명론적 기독교'라고 부른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여성은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만드는 영적인 오류에 빠졌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은 회교 신앙과 대단히 잘 들어맞으며, 또한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운명론적인 신앙과도 다를 것이 없다. 기독교에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즉 인간의 역사를 쓰는 일에 하나님의 동반자요,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초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해 온 악의 세력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악의 권세에서 구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시며, 인간 역사를 좀 더 낮게 변화시킬 '천국열쇠'(마16:19)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14:12-14)

이보다 더 명백한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저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즉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 것일까? 회교도나 불교도 또는 힌두교도는 잘못된 겸손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획을 바꿀 만큼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겠는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1983년 오픈도어선교회는 소련을 위해 7년간 기도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초래하는 악의 음모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확신했다.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 수백만 명이 계획적으로 대량 학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 우리는 사단의 강한 요새를 공격하여 그를 대적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도처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뜻을 같이 했다. 우리는 동유럽과 소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지고, 투옥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구하며 특별히 기도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항상 듣던 공산주의 미사여구 대신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기도했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그 바람을 막을 길은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지 6년이 되어갈 때, 동서의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압제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감옥문이 열리기 시

작했다. 동유럽은 그들을 속박하던 권력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났다.

30년 동안 철의 장막 뒤로 성경을 밀반입시키던 나는 1989년, 소련인들에게 우리 단체가 소련 교회에 러시아어 성경 백만 권을 배포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허락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7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소련에 있는 감옥이나 집단 수용소에 신앙때문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는 대로 그저 받아들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땅을 뒤흔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 브라더 앤드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중

IDOP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이유

나이지리아와 차드 사이에 자리한 카메룬 북부 지방은 극단적인 환경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바위산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의 공격을 피해 숨은 기독교인들의 피난처가 되곤 합니다. 한편, 척박한 사막 지형은 국경을 험준하게 만들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드나들기 쉽게 하고, 정부의 통제는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카메룬 북부에서 산다는 것은 곧 고난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목축, 낚시 등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미래를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Adam)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무슬림 삼촌 밑에서 자라며 학교를 다니던 중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학교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갔는데, 그곳



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약속은 이후 그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2022년 4월, 북부 지역의 한 섬에서 일하던 중 아담은 처음으로 보코하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앉아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방이 포위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더니, '기독교인은 이쪽으로, 무슬림은 저쪽으로 서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담과 다른 7명의 기독교인들이 따로 불려나와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물었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일하라고 허락했느냐?'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이 지역이 무슬림들의 구역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호하람 전사들은 아담과 다른 포로들에게 카누에 타라고 명령한 뒤, 밤새도록 손으로 노를 저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서는 며칠 동안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아담은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보코하람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들은 5주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코하람 내부에서는 두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갈등은 결국 그들의 탈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혼란이 있었을 때 우리가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흔적조차 숨겨야 하는 삶

가족과 다시 만난 것은 기적이었지만, 아담과 그의 공동체 기독교인들에게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슬림이 아니면 일할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 고용돼야만 일할 수 있고, 그들이 임금을 줍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밭이든, 일자리든, 고기 잡는 일이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가진 건 모두 다 잃었어요."

보코하람은 납치 행위로 악명이 높지만, 동시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여 특히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사는 곳에서도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경계는 뚜렷합니다. "무슬림들은 장사를 하고,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원하는 대로 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은 이 마을로, 내일은 또 다른 마을로 도망쳐야 하죠. 지금도 우리는 도망자 신세예요. 어디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농사도 없으니,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형제자매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개종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던 중, 아담은 두 번째로 보코하람에게 납치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2024년 1월 1일, 아담과 그의 가족은 다른 마을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던 순간,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열어라, 열어!" 누군가가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열어라, 어서 열어!" 아담은 깜짝 놀라 급히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온 건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들의 신발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코하람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담이 밖으로 나서자, 이미 형이 붙잡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앓히고, 손을 뒤로 묶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집에도 들어가 모두 묶어 데려왔습니다."



아담은 다시 한 번 보코하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앓은 채로, 갇힌 채로 살았습니다.” 그는 공포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음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뿐이었습니다. ‘타르가이(Targai)’ 혹은 ‘푸푸(Fufu)’라고 불리는, 걸쭉한 옥수수죽이었죠. 수용소에는 여러 마을에서 잡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금속 판으로 둘러싸인 우리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바깥에는 무장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그들이 사람의 눈을 붓대로 가리고는 총을 쏘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포로로 잡혀 있던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사람들을 인질로 가둔 방 뒤쪽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땅을 파고, 사람을 묶은 뒤 그 구덩이에 넣고는 쏩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어요. 나는 거기서 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저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날 이후, 아담과 그의 동료들은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수용소에서 계속 기도했어

요. ‘주님, 언제 우리를 구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죽을 거라면, 그냥 죽게 하시고... 살려주실 거라면,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6주가 지난 어느 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날 밤, 보코하람 전사들이 왔어요. 우리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누워서 우리에게 말을 걸더니, 어느 순간 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감시하던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회다..!” 우리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맞춰 수용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담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강을 헤엄쳐 새벽이 될 때까지 건너고, 그 후 하루 종일 숲 속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을 만나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기적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재회한 뒤에도,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워졌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납치 피해자들처럼,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잠들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꿈을 꿔요. 좋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라 깨곤 했죠. 마치 내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

2024년 9월, 오픈도어의 현지 사역자들이 아담의 공동체에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강해졌어요.” 아담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오픈도어 사역팀은 보코하람 공격 생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회복 모임을 북부 지역에서 열었습니다. 아담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담대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우리를 도와준 모든 기독교 형제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들, 즉 폭력적인 박해를 겪은 기독교인들은 단순한 구호뿐 아니라 통합적인 회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트라우마 회복, 긴급 구호,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히 서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담은 여전히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 번이나 살리신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납치당하고, 또 두 번째로 납치당했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고백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살려주신 것이겠죠.”

아담의 삶은 분명,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마을에도 보코하람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다른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이제 그들을 격려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를 따르라”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아담과 그의 공동체는 여전히 보코하람의 공격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6일 새벽 1시 30분경, 보코하람 전사 약 100명이 그들의 마을 군사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정부군과의 치열한 총격전 끝에 정부군 3명이 사망했고, 테러리스트들은 다량의 무기와 탄약, 장비를 약탈했습니다. 또한 시장, 주택 등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 보코하람에 의해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거처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길 구합니다.
- 아담과 그의 공동체가 건강과 평안 속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평화가 회복되어, 총성과 두려움이 멈추고, 다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아담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IDOP

오픈도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담당자 아나후(Anahu*) 인터뷰

나이지리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나후(Anahu)입니다. 저는 트라우마 케어 전문가로, 나이지리아에서 오픈도어가 운영하는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나이지리아의 박해받는 교회가 필요한 만큼의 심리적·정신적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특히 19개 북부 주에는 하루하루 박해를 겪는 기독교인들이 5천만~7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 표현을 꼭 기억해주세요 — “매일(daily)”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현실입니다.

Q.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박해자들은 지역마다 다른 이름과 형태로 존재합니다. 나이지리아 안에서도 정체성과 활동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리에겐 무장한 풀라니 목동(Fulani herdsmen),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Boko Haram), ISWAP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West Africa Province), 그리고 무장 강도단·납치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그들은 “테러리즘”, “정치적 분쟁”, “농민-목축민 충돌”, “기후변화” 등 여러 이름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Q. 땅 소유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치, 경제, 부족 간 갈등 등의 요소도 덧붙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합



니다. 이건 박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생명과 신앙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Q.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다르게 박해받고 있나요?

박해자들은 남성과 여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지만, 결국 목표는 같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그들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공격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자녀를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죠. 그러면 그 남성은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고, 가족에게조차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여성의 경우, 그들의 가치와 존엄,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특히 성적 순결 부분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여성이 ‘더럽혀졌다’고 느낄 때, 그 상처는 그녀 자신뿐 아니라 남편,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성폭력과 강제 개종의 비극

많은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금된 뒤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당하고, 세뇌를 거친 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치된 여성들 중 상당수는 여러 명의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그 결과 임신하게 되면, 그 여성은 쫓겨나듯 풀려나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더 많은 비극이 찾아옵니

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남편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족도 그녀를 환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 이것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 그녀를 품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이 떠오르는데...” 박해자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여성을 품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고, 그것이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교회 전체가 상처 입은 여성을 다시 품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Q. 박해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뭉칩니다. 물론,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각오를 다졌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박해의 영향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낙인은 너무나 큼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어디 계셨나요?” 제 자녀들도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요?”

아프리카의 삶은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모두가 함께 상처받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고통은 공동체 전체에게 “너희는 약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로,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퍼뜨립니다. 결국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이 흔들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Q. 트라우마 케어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 사역의 주요 대상은 여성, 어린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트라우마 케어는 크게 ‘심리적 트라우마 해소’와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폭력으로 신앙의 이유 때문에 상처받은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훈련된 돌봄자(caregiver)를 보냅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며, 4~5일간 집중적인 트라우마 케어 세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심리적 상처가 심각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우리가 구축한 전문 트라우마 센터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트라우마 센터에는 상담사, 심리학자,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과 며칠씩 함께 지내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다양한 심리적 치유 기법을 사용해 돕습니다. 이들은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센터를 방문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갖도록 돕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했죠. 그녀가 트라우마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처음으로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원한과 증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렇게 말했죠. “복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누가 다른 말을 꺼내면, 그는 곧바로 ‘박해자 편에 선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트라우마 치유 워크숍에 와서 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끔찍한 일을 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Q.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세계 교회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말해주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경험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전할 목소리가 없습니다. 세계 교회가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옹호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를 외롭게 두지 말아 달라. 외로움은 교회를 죽게 만들고, 힘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교회를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나이지리아에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세계 교회가 계속 우리 곁에서 있다면, 왜 나이지리아 교회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계 교회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계 교회가 진실을 알기 전에는, 기도하는 법을 알 수 없고, 박해받는 자들을 지지하는 법을 알 수 없으며, 지원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Q.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이 나이지리아 교회를 위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이지리아 교회와 세계 교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이 있는 곳에, 알 필요가 있는 곳에, 행동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불의와 폭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녀들을 우리 조상의 땅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아프리카인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 교회가 나이지리아 정부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취약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부와 대통령, 상원, 주지사, 지방 의원, 안보 기관에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요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나라가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전 세계 교회에 한 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천 개의 허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게는 입이 하나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처럼 트라우마 케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과 질, 규모로 트라우마 케어를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도 다른 곳이 없습니다.

오픈도어가 베트남 여성들의 신앙 성장을 돕습니다

베트남 고원지대에서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여성들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은 여성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프로그램을 마친 뒤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흐넨(H'Nen)*은 이 훈련을 통해 크게 성장했고, 이제 여성 소그룹 리더로서 지역 사회의 다른 여성들을 이끌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흐넨이 자신이 받은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 경험과, 사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쓴 글입니다.

부족 여인의 감사한 마음

흐넨(H'Nen)은 40대 초반으로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심각한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고원지대에 사는 에데(Ede) 소수민족 출신으로,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에데족은 모계 중심 사회로, 가정은 여성이 이끌며 결혼 후 남성이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에데족의 전통 신앙은 정령 숭배로, 불·물·쌀·흙과 같은 자연물을 섬기는 애니미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넨은 2025년 6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여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기대하며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주신 오픈도어 사역자들과 후원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훈련에 참여하며 겪었던 어려움도 회상합니다. "지난 번에는 여기서 두 시간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3일 동안 공부했어요. 그때는 저와 제 딸들은 몰래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눈치채지 않도록요." 만약 이웃들이 그녀가 훈련에 참여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현

지 당국에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제자훈련의 지속적인 영향

흐넨(H'Nen)은 2016년에 처음 여성 제자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신앙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큰 축복을 느낍니다. 이제는 리더로서 다른 여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뿐 아니라 다양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흐넨은 따뜻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흐넨은 그 슬픔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인도한 수업에는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슬펐지만 '슬픔 속에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슬픔 속에서도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 자매들에게 함께 믿음을 지켜가자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가정을 부양하는 미망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흐넨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흐넨은 이 확신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상

항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후원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인 흐영(Huong)*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교회에는 청년 프로그램은 없지만 여성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 훈련은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보안을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베트남 여성들, 특히 고원지대의 소수민족 여성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지혜롭게 가르치며, 훈련의 참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강사들과 참가자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흐넨과 그녀의 두 딸을 사용하셔서 지역 사회의 다른 여성들을 격려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가정과 여성 모임 사역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리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4살 때, 사리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리를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전도지를 건네주었고, 사리는 그 안에 담긴 말씀에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전도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리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우상숭배를 멈추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오픈도어의 현지 사역자가 운영하는 '여성 훈련 센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1년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재봉틀 다루는 법과 뜨개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훈련을 마친 직후, 그녀는 재봉틀 한 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그 재봉틀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다

14살 때, 사리는 낯선 사람이 건준 전도지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믿고 따르던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어요. 항상 부족함을 느꼈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읽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기도학교의 목적

오픈도어의 핵심가치로 무장한 기도용사 30명을 세워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지역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합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적 연대**
- 오픈도어 사역현장과 **선교전략의 깊은 이해**
- **브라더 앤드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오픈도어 기도학교가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용사를 세운다'는 비전 아래 9월 9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학교는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25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약 2시간 20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단순한 강의 형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실제적인 기도의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주제에 맞는 말씀과 사례를 통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의 삶과 신앙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에는 공개 강좌가 진행되어, 오픈도어가 1981년 중국에 **1백만 권의 성경을 전달한 '진주 작전(Project Pearl)**'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강좌를 통해 참가자들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겪어 온 도전과 박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섬김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번 강좌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학교도 종반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몇 주 동안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 참가자들이 배운 것들을 실생활 속 기도로 연결하며, 한국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행동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 기도학교를 통해 배운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학교 참가자뿐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여,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은 기도와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즉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가는 즉시 찾아왔습니다. 사리의 결정에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지지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 일은 이웃들에게 말하지 마라." 부모님은 지역 사회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사가 이를 알게 되었고 전도를 멈추라고 위협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이를 알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사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과 일부 친구들의 지속적인 핍박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리를 '여성 훈련 센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1년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리는 훈련을 받으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봉과 뜨개질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과정이 끝났을 때, 오픈도어는 그녀에게 재봉틀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재봉틀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재봉틀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재봉틀을 통해 여러 옷과 물건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제 21살이 된 사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 당국이 신분증에 기재된 종교를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리는 무슬림 신분으로 대학에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에서는 그녀를 여전히 무슬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대학교 1학년 때, 사리는 이슬람 종교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에 적힌 종교가 이슬람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에서 사리는 히잡을 착용하고 꾸란을 읽는 것까지 요구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신분증의 종교를 바꾸지 못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죠"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사리에게 계속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사리에게 학업의 문이 계속 열리기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 그녀가 안전하게 신분증의 종교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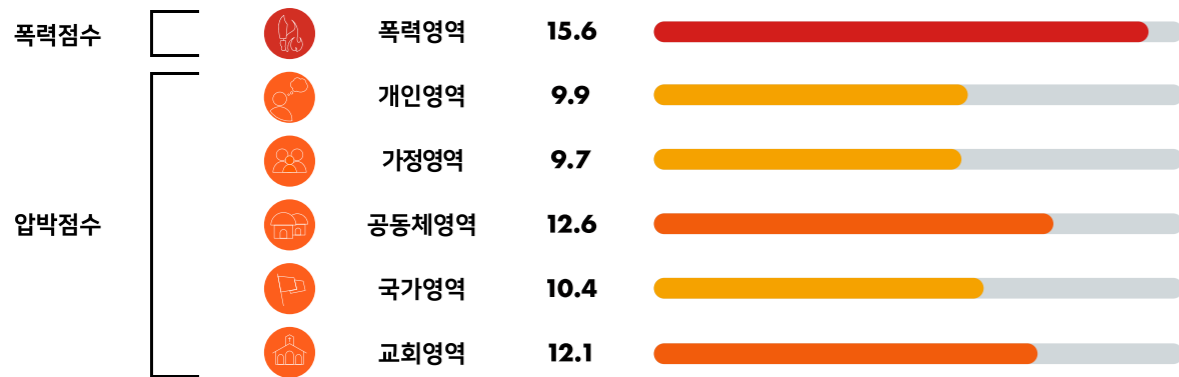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에티오피아 (ETHIOPIA)

33 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비전통적 기독교 단체들은 지역 당국과 에티오피아 정교회(EOC, Ethiopian Orthodox Church) 양측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탄압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교회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슬람 배경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특히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그리고 정교회 배경에서 다른 교파로 옮긴 '교파 간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당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자원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사회적 배척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말리 주(Somali)와 오로미아(Oromia)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군중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지난 3년간 이어진 정치적 폭력은 기독교인들의 취약성을 심화시켜 티그라이(Tigray), 오로미아, 아므하라(Amhara) 지역에서 더 큰 압력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들었다.

에티오피아 (Ethiopia)

국가 정보

지도자 : 아비 아흐메드 알리 총리
 인구 : 129,720,000명
 기독교인 수 : 77,509,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연방 의원내각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77,509,000	59.8
무슬림	44,512,000	34.3
민속종교	7,511,000	5.8
불가지론자	105,000	0.1

출처²

에티오피아에서는 종교보다 민족이 주된 정체성 표지로 작용한다. 종교 기반 갈등도 여전히 발생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불안정은 주로 민족 기반 무장 단체들과 관련된다. 2020년 11월, 민족 정당인 티그라이 인민 해방전선(TPLF, 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과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졌으며, 정부는 이를 "법과 질서 집행 작전"이라고 불렀다. TPLF는 지역 정부에서 축출되었고, 의회가 과도 관리 정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정부군이 철수하자 TPLF가 다시 지역을 장악했으며, 더 나아가 정부군을 남쪽으로 밀어내 아파르(Afar)와 아므하라 지역 깊숙이 진입했다. 잠시 휴전이 있었으나, UN에 따르면 티그라이, 아므하라, 아파르 지역의 불안정은 계속되며 국내 실학민(IDPs)에게 악영향을 주고 인도주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2022년에는 TPLF와 연방정부 간 평화협정이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중재·체결

되었다. 또한 오로모(Oromo)와 아므하라 지역에서도 민간인의 사망, 파괴, 강제 이주를 초래하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에리트레아와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지난 10년간의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정치 지형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특히 아므하라, 오로미아, 티그라이 지역에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에티오피아 정교회, EOC)를 국교로 채택한 최초의 나라 중 하나였으며, 현재는 국교 지위를 잃었지만 정교회는 여전히 정치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 운동은 비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들 기독교인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소식

현재 저희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정상 부득이하게 2026년부터는 오픈도어 소식지를 현재 월간 발행에서 격월 발행으로 변경합니다. 월간오픈도어 소식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과 기도 제목 등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WEEKLY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나의 희망의 선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 5일 ○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